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수빅에 안에 있으며, 규모는 단과대 정도만하고 시설은 학생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나 빨래 같은 것들은 거기서 직접 다 해줘서 편합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수 있어서 정말 시원하고, 벌레가 좀 있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농구, 족구, 탁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 주며, 저녁대신 나가서 사먹을 수 있고, 샌딩 서비스로 한 학교당 10명 정도 무료로 시내로 픽업 해줍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처음에 도착한 날 바로 레벨테스트를 보고 책의 수준과 그룹을 나눕니다. 테스트를 보는 것은 듣기, 문법, 독해, 쓰기, 토익 스피킹 시험을 봅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토익에서 파트 1,2 문제이고, 말하기는 토익 스피킹 파트 1,2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문법은 기본적인 것을 보고, 독해도 읽고 문제 푸는 것이고, 쓰기는 주제를 정해주고 자유롭게 쓰는 것 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1대1 수업 4시간 그룹 수업4시간을 하며, 강사는 필리핀 현지인입니다. 과제는 거의 없고 수업시간만 집중하면 충분히 실력이 늘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룹수업은 책 내용에 관해 토의를 하고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익 스피킹 수업은 실제 시험 대비를 해주고, 그룹 수업 중 MMC수업이 있는 데 이 수업에서 광고와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만든 것은 마지막 날에 발표합니다. 일대일 수업 또한 책 내용에 관해 토의하고 요약하는 수업을 하며, 단어 수업이 2시간 있습니다.
Activity	Activity는 안바야 코브, 마닐라 투어, 요트 투어가 있으며, 안바야 코브는 인당 2만원이면 충분이 쓰고 남으며, 수영복이 있어야 풀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닐라 투어는 아서몰에서 사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요트 투어는 저희는 날씨문제로 취소됐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여름에는 우기로 써 매일 비가 내리는 데 전부 소나기여서 금방 그치고 다시 내리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산은 필수로 들고 다녀야합니다.
안전	총기에 대한 걱정이 먼저 있는 데 수빅은 안전 지역이라 걱정 안하셔도 되고 늦게 까지 돌아다녀도 5명이상 같이 다니면 괜찮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를 사용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깨끗하나 벌레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뱀, 바퀴벌레, 개미등등 있으며, 다른 부분은 깨끗합니다.
식사	학교식당을 이용 하였으며, 한식이 나오는 데 그날그날 조금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맛있습니다.
교통	수업은 기숙사 건물에서 하므로 교통비는 안 들지만, 시내에 갈 경우 FB 라는 버스는 인당 280원 정도이며, 택시는 4명 기준 2400원정도 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472,000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120,000	수영복,화장품 등
식비	300,000	
동물원	20,000	입장료, 택시비
짚 라인	12,000	
교통비	20,000	
합계	472,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신발은 슬리퍼 하나만 있으면 되며, 겹옷은 하나만 챙기고 많이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옷도 월,수,금 빨래를 할 수 있어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 없으며, 최대한 양을 줄여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은 넉넉히 400달러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 물가가 싸다고 하지만, 먹고 싶은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400달러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것을 챙겨갈 필요는 없으며, 거기서 주는 책만 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한 광고나 뮤직비디오를 편집해야하는 데,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고 프로그램도 깔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단어를 많이 외워오는 것이 좋고, 미드나 영화등을 많이 보면서 영어에 익숙해지고 오면 더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첫 주에는 별레가 있고, 수업시간이 8시부터 5시까지다 보니 적응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을 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스피킹 실력을 정말 많이 향상시키고 싶은 욕심이 커서 그런지, 처음에 문법이나 단어선택을 이상하게 하여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말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향상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서 제가 도전해보지 못한 연기나, 장기자랑, 리더 등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부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얻어 간 것 같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요트투어가 취소되고 바비큐파티 일정 변동이 많은 것이 아쉬웠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간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선생님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해주고 서로 선물도 주고 편지도 써주면서 감동적인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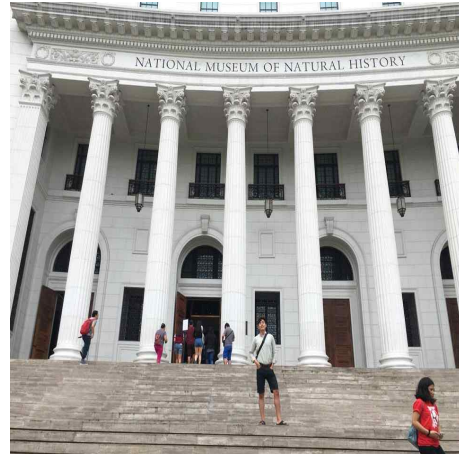
마지막날 그룹이 선생님께 편지 쓴 것



주빅사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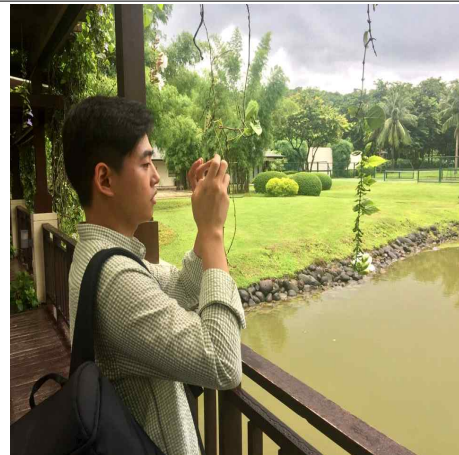
Fun Friday 활동



마닐라 투어



수빅 투어



안바야 코브